

# 일본 문화, 과연 위험한 것인가

김현구 ·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대중 문화 개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만화나 영화, 음반 등 일본 대중 문화의 허용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왔다. 찬성론자들은 주로 현재의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문화의 전파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인위적으로 문화의 유입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오늘날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기술 의존국임과 동시에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국인데, 다른 나라의 대중 문화에 대해서는 다 개방을 허용하면서 일본 것만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반대론자들은 주로 역사적인 교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침략만을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일본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일본 열도는 산이 높고 험준하기 때문에, 경작지가 모자라 쌀의 부족분을 밖에 나가서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평화적으로 가능한 때에는 무역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언제나 침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바로 이웃에 있는 한국이 직접적인 침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에 걸쳐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200여 년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은 차치하고 삼국시대에 한국이 일본에게 많은 침략을 당한 것만은 사실이다. 광개토대왕릉비문에 의하면 400년에는倭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광개토대왕이 5만의 기병을 동원해야 했고 404년에는倭가 구 대방 경계까지 침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도倭가 50여 차례나 한반도 남부를 침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삼국시대에倭의 침략이 얼마나 극심했던가는 경북 감포 앞바다에 있는 대왕암의 주인공인 신라 문무왕(661~680)이 '내가 죽으면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왜적을 막겠으니 동해 바다에 물어 달라'고 한 유언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멸망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한 왜구는 100 척 이상의 규모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거쳐 황해도와 평안도가

지 출몰하며 지방에서 세곡을 거두어 서울로 올라오는 조운선을 노략질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7년간의 임진, 정유재란을 통해서 우리 국토를 쑥밭으로 만들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35년간 한국을 직접 지배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언제나 일본이 분열의 시대에서 통일의 시대로 들어가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통일된 힘을 가지고 통합된 세력의 불만 배출구로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의 침략은 일본이 고대 통일 국가로 들어가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고려말 조선 초기의 왜구는 남북조(1336~1392)가 통일되는 시기에 일어난 것이었으며, 임진·정유왜란은 100여 년간 계속되어온 전국시대(1467~1587)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1905년의 한일 합방은 에도시대(1603~1867) 300여 개로 나뉘어 있던 영주들을 통합한 메이지 정부가 단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다시 통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과거와 달리 총칼을 앞세우지는 않지만,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징후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엿보인다.

동서냉전체제 속에서 일본을 아시아 반공 국가의 보루로 만들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을 결합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으로 1965년 한일 국교가 재개되었다. 그 결과,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을 뒤쫓아가게 된 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 구조적으로 일본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었다. 따라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자본재를 일본에서 들여오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되어 100억 달러 어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10억 달러 어치 정도는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965년 한일 국교가 재개된 이래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누적 적자와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적자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국에 대해서, 그들은 오만하게도 한국이 필요해서 수입을 하는 것이니까 필요없으면 수입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없이는 한국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경제적인 영향력은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우선 쉬운 예로, 일본에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남북 관계 등에서 일본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본의 정치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감정에 반해 주일대사나 외무장관이 앞장서서 일본의 대중 문화 수입을 주창한다던가, 누구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거'에 대한 일본 수상의 발언을 훌륭한 것이라고 칭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倭'가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왜식집'이라는 간판을 '일식집'으로 바꾸게 한 것 등은 일본측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직접 지배를 받기도 했었고, 또 광복 이후에도 일본을 뒤따라가면서 근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면이 적지 않다. 내용이 다르다면 명칭만 닮을 수가 없는 법인데, 택시에 써 있는 '합중'이라던가 지하철 역의 '정산소',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택배' 등은 하나 같이 일본 것을 그대로 복사한 말들이다. 그밖에도 '반사회', '향토예비군' 등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닮은 말은 이루 헤아릴 수없이 많다. 우리는 도쿄의 거리를 걸어도 서울과 별로 다르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본을 닮아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영향력의 확대는 한국 사람들에게 막연하게나마 한국이 다시 일본에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게다가 근래에 나돌고 있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설'이나 일본 정치가들에 의한 '일본 열도 불침 항공모함설' 등은 한국의 의구심을 자극하기에 족했다고 생각된다. 사실 그런 불안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인 '신대동아공영권론'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연말 일본 정부 발표에 의하면, 1994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22 개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626억 달러로 북미, 유럽 등 33 개국에 대한 무역 흑자 614억 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가 구조적으로 일본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일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경제·사회적인 영향력은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는 데 비해, 일본 대중 문화의 상류와 유행은 가시적인 형태로 다가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영향력과는 별개로 정치·경제·사회적인 면보다는 일본 대중 문화의 허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실제적인 영향력과는 무관하게 1895년의 '단발령'이나 1940년의 '창씨 개명'이 국민들의 감정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실을 상기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의 대중 문화가 가시적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대중 문화의 유행이 우리의 정신적인 일본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형평성과 일본과의 현실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일본 대중 문화의 허용에 대한 반대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 대중 문화 개방의 방향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월드컵의 공동 개최라는 의미를 떠나서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미래에 있어서 한일간 협력의 바탕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의 협력을 바탕으로 과거까지도 청산하자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미래의 바탕은 현재이고 현재의 바탕은 과거에 있다. 따라서 미래에 있어서 진정한 협력은 그들의 현재의 자세에 달려 있고, 그들의 현재의 자세는 과거에 대한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일본의 과거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과거의 한국 지배는 정당한 것이었다던가, 정신대는 상행위였다는 등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미래에도 그런 일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이런 태도가 일과성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한국 침략의 주역이었던 군국주의자들이 대부분 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해서 전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동서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한국에서 6·25가 일어나자,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 반공 국가의 보루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침략의 주역이었던 군국주의자들을 석방하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을 침략한 행위나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 상황에 따라서 가끔 사과하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고 그런 사과는 아무리 받아도 무의미한 것이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협력을 운위하는 것은 반항없는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크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 협력이라는 것도 한시적이고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의 공동 개최는 이미 부하된 과제가 됐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정상은 지난 6월 23일 제주 정상회담에서 2002년 월드컵의 공동 개최를 계기로 청소년·전통 문화·스포츠 교류의 확대에 합의했다. 우선 전통 문화부터 교류한다고 하지만 논란을 거듭해오던 일본의 대중 문화에 대한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은 일본 대중 문화의 허용 여부보다도 정신적인 일본화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 향후 과제

노래방은 일본의 전자 업계가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일본측의 예상대로 한국에 상륙

하자 순식간에 전국을 휩쓸고 일거에 불황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한국에서 공천의 히트를 친 노래방이 구미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서구 사회는 일본에서 고안된 노래방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바탕인 데 반해, 한국 사회는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치원에서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의 많은 교재가 일본 것을 모방하거나 복사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만화 시장을 복사판 일본 만화가 휩쓸고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대중들에게 가장 영향력있는 매스컴까지도 일본 것을 복사하거나 모방하고 있는 것도 업연한 현실이다.

오늘날 대중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체가 텔레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내용이나 구성에서 일본 것을 많이 모방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정 프로그램이 일본 것을 모방했다는 지적은 프로그램 개편이 단행될 때마다 누누이 지적되곤 한다. 소재·포맷은 물론 제목, 스튜디오 구성까지 일본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버젓이 방송되는 예도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의 1996년 3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1996년 봄철에 신설된 '정보특급 금요베스트 10' 이란 프로그램은 일본 NTV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방송 중인 '빛난다! 소문의 텐 베스트 쇼'를 거의 그대로 베껴 "세트까지 표절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연예인이 세계의 진기한 풍물·오지를 직접 체험하는 '도전 지구탐험대'라는 프로그램도 일본 NTV의 '감동 익스프레스'와 유사하다고 한다.

신문에서도 일본 청산을 이야기하면서 'YS가신그룹' 어찌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일본말이고 그것도 봉건제 사회에서나 쓰이던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이나 글자만 일본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었지, 구조나 내용은 모두 일본 것을 보고 배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 구조가 일본화되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고, 따라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노래방이 들어와서 유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형성된 우리의 일본적인 정신 구조를 이대로 방치해둔 채 아무리 인위적으로 일본 대중 문화의 도입을 막으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일본 대중 문화의 도입을 막고 있지만 들어올 만한 것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최근 수입된 '장군 마에다'가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진 싸울아비' 등 일본 사무라이에 대한 게임은 이미 시중에 널리 범람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중 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만화 시장도 일찍부터 제목만을 바꾼 일본 만화가 휩쓸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슬램 덩크', '드래곤 볼' 등 일본 만화가 드러내 놓고 한국의 만화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음악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룹 '롤라'가 일본의 댄스 그룹 '닌자'의 곡을 표절한 '천상유애'를 발표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논노」의 경우 공개적으로 들어와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패션 잡지이다. 이와 같이 들어올 만한 일본의 대중 문화가 실질적으로는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개방 여부를 운위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한국 사회의 일본화를 막고자 한다면, 정서상 일본화되어 있는 정신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선,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부터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스미디어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바탕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 일본적인 것에서 벗어난다면, 일본의 대중 문화를 허용 못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허용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역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오늘날 우리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것은 남의 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앞에 서서 나가는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의 정신 구조부터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구조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은 일본 대중 문화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국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고, 하루 빨리 우리의 정신 구조를 이대로 방치해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것을 되찾고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여 말만의 선진화가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진정 우리 것을 되찾고 확립하게 된다면 일본 대중 문화의 수용 여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일본의 태도와는 관계없이 당당하게 2002년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고 그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역사 인식까지도 공유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